

Profile

조 은 영
joe eun young

TEL: 010-4488-2880

E-mail: angel144000@naver.com

Address: Sunae-dong, Bundang-gu

Education

- 2024 UI/UX웹디자인 과정 수료
- 199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중퇴
- 1991 서문여자고등학교

license

- 2024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 2023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006 운전면허2종 보통

Skill

Figma, HTML, CSS, Excel, photoshop

Mind

- 긍정적인 마인드
- 책임감 강함
- 노력형
- 인내심
- 성실함
- 화목한 분위기 지향

Interest

요리, 등산, 걷기

이젠 아카데미에서 배운 시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설렘,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기회를 준 나라, 선생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 발전하는 웹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맡은 일을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완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원만하며,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격 덕분에 때로는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너무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민이 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저의 본능적인 성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입니다. 전신마비로 8개월 정도를 지나 어느 정도 거동하시다 돌아가시기까지 병간호를 저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환자식을 챙기며 정성을 다하다 보니 점차 의식을 되찾으셨고 비록 반신불수이지만 5년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뇌 MRI 상으로는 곧 돌아가신다. 잘해야 침상생활이다.”라고 했던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않고 정말 후회없이 잘 돌봐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있던 보호자들도 제가 며느리라는 것에 놀라며 감탄했었고, 의사들도 제 헌신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인내와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저는 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때까지 직접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인내심과 집중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교육의 중요성과 끈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저는 53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성숙함과 책임감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사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저 자신의 커리어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